「지방정부연구」 제19권 제1호(2015 봄): 329-352
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Vol.19 No.1 (2015 Spring)

6.4 부산 지방선거에 나타난 투표행태
: 투표율, 세대간 투표 그리고 무효표의 영향을 중심으로*

김 대 래**

국문요약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전국적 관심의 대상이었던 부산의 시장선거를 중심으로 투표율, 세대별 투표경향 그리고 무효표의 향방이 선거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하였다. 연구가설로는 투표율이 높을수록 새누리당에 유리할 것이라 예상하였고, 세대별로 선호정당이 선명하게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점 그리고 무효표가 후보자들의 당락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것이었다.

이상의 3가지 가설에 대해 검증한 결과는 아래와 같았다.

첫째, 투표율이 높을수록 새누리에 유리할 것이라는 가설은 유의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과거의 선거에 비해 6.4선거의 투표율은 많이 높아졌는데, 세대별 투표율을 매개로 한 전체 투표율은 선거결과에 중립적이었다. 이것은 투표율의 상승이 특정계층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모든 계층에서 대체로 고르게 일어난 것이란 사실을 말해준다.

둘째, 세대별 투표가 두 후보의 지지에 크게 작용하였으리라는 가설은 사실임이 확인되었다. 60대 이상은 새누리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고 20-30대는 오거돈 후보에게 우호적이었다. 경계에 선 40대도 반새누리 투표성향을 보였다.

셋째, 높은 무효표의 비율은 야권에 불리하게 작용하였으리라는 가설에 대해 통계적 검증은 유의성을 보여주지 않았다. 무효표 비율과 두 후보의 득표율간의 관계는 중립적인 것으로 나타나 어느 후보에게도 유리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물론 무효표는 여러 루트를 통하여 각 후보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러나 무효표가 만들어내는 여러 작용들의 종합적인 영향은 중립적이었다.

주제어: 6.4 지방선거, 부산, 무효표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본고는 2014년 6·4 부산시장 선거에 나타난 투표행태에 관한 분석이다. 주지하다시피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부산은 전국 최대의 격전지로서 전국적 관심이 집중된 지역의 하나였다(박범

* 논문의 완성에는 심사위원들의 애정어린 지적과 충고가 큰 도움이 되었다. 이 지면을 빌어 감사드린다.
** 신라대학교 국제통상학부 교수

종, 2014: 98). 선거기간 동안 새누리당의 서병수 후보와 무소속의 오거돈 후보는 치열한 접전을 벌였으며, 선거결과 또한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근소한 득표율 격차로 당락이 결정되었다.

우선 선거구도부터 다른 지역과는 달랐다. 여당인 새누리당과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간에 치러진 전국의 대부분의 광역단체장 선거와는 달리 부산에서는 새누리당과 무소속 후보간의 선거로 치러졌다. 새누리당의 서병수 후보에 대항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한 오거돈 후보는 야당의 러브콜에도 불구하고 무소속 시민후보를 표방하였다.[1)]

그러나 그 보다 더 관심을 끌었던 것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박빙의 경쟁이었다. 선거후반으로 가면서 여론조사의 격차는 좁혀졌고, 흑색선전과 폭로가 난무하였다. 새누리당의 안방이라 할 수 있는 부산에서 벌어지고 있는 치열한 경쟁은 그 자체로 전국적 관심사가 되었다.

선거결과 또한 전국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였다. 16개 광역시도장 선거에서 부산은 가장 적은 득표율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었다. 더욱이 당선자와 차점자간의 표차는 무효표의 절반에 불과하였다. 그리하여 박빙의 선거로 치러진 부산시장 선거결과는 비슷한 결과가 나온 경기도와 함께 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주목의 대상이 되었다.

경기도의 경우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경합을 벌인 것이 다르긴 하였지만 두 가지 점에서 부산과 아주 유사하였다. 우선 두 지역 모두 사퇴시기에 약간 차이가 있긴 하였지만 선거막판에 통합진보당 후보가 사퇴를 하였고, 이것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가 매우 큰 관심사가 되었다. 그리고 선거결과 두 지역에서는 대량의 무효표가 발생하였다. 그 무효표는 당선자와 차점자간의 득표수 차이보다 훨씬 많았는데, 이로 인해 무효표의 향방이 당락에 준 영향에 관해 많은 관심이 기울어졌다.

이처럼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부산은 특별한 위치에 있었다. 이 특별한 위치에 있었던 부산 시장선거에서 부산사람들은 어떻게 투표를 하였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특별한 상황이 만들어낸 요인들이 투표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 그 속에서 부산 유권자들의 투표행태의 일면을 살펴보려는 것이 목적이다.

2. 연구사적 검토와 연구의 방법

1) 연구사적 검토

투표는 유권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수단의 하나이다.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이 제시한 공약에 대해 투표를 통해 반응하며, 이 투표를 통해 민주주의가 유지된다. 때문에 유권자들의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는 정치과정을 이해하는 주요한 수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의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는 별로 많지 않다.

1) 오거돈 후보의 이러한 포지셔닝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전폭적으로 지지를 표명하면서 가세하였다. 이전에도 시민단체들이 특정후보에 대해 선택적 지지의사를 밝힌 사례는 있었지만 후보가 시민후보를 표방하고 시민단체들이 대거 시민후보를 지지하면서 선거캠프에 가담했던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지역주의의 폐해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유권자들의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적 정서였다. 정책이나 인물보다 어떤 지역을 대표하는 정당으로 나왔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이러한 지역주의 투표가 강력하게 작용하는 한 투표행태에 관한 합리적 설명은 설자리가 약할 수 밖에 없다. 그러다 최근 들어 지역주의 투표가 엷어지고 있고, 유권자들은 과거에 비해 훨씬 다양한 기준으로 후보를 선택하고 있다.

투표행태 즉 누가 어떻게 투표를 하고 정치에 참여하는가에 대해서는 3가지 접근이 있다(박범종, 2014). 하나는 성별, 교육수준, 연령, 수입, 직업과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이고 또 하나는 유권자들의 정치적 관심이나 가치 등의 정치문화적 요인이다. 세번째는 유권자가 정책이나 공약을 보고 효용가치가 더 높은 것을 선택한다고 보는 경제적 접근이다. 투표행태에 관한 요인들은 무수히 많지만 넓게 보면 이 세 개의 범주로 포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체계에서 송건섭·이곤수(2011: 51)는 유권자의 교육과 소득, 직업 등의 사회적 지위나 연령과 종교 등이 투표 결정행위를 설명하는 요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으며, 정당, 후보자의 자질, 후보자의 이미지, 정책이슈 그리고 이념 등 다양한 요인들이 투표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박범종: 102 재인용). 후보자를 선택하는 기준을 연구한 김영하(2000)의 연구는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인물, 도덕성, 경력, 능력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이 지역발전과 정당순이라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박범종: 102 재인용).

강경태(2008.6)는 2006년 지방선거의 투표참여자와 불참자의 특징을 조사하였는데, 불참자들의 정치효능감은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 강경태(2008.11)는 1987-2006년간의 14회에 걸친 투표율을 분석하면서 고용율이 상승할 때 투표율도 동반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정리하였다. 투표율이 경제적 상황에 의해 좌우된다는 시사이다. 강경태·박범종·고선규·강성훈(2013)은 2012년 12월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중국내 재외국민들은 국내유권자와는 달리 정책과 공약, 인물/능력을 중요시했다고 보았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14)는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전국 13,665개 투표구 전체 유권자의 10%를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를 하여 지역별·연령별·성별 투표율을 비교하여 투표행태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

부산시민들의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들은 많지 않다. 부산시사편찬위원회에서 펴낸『부산시사』에 1950년대 지방의회 선거결과에 대한 자료가 정리되어 있는데,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선거 결과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투표행태에 대한 분석도 없다(부산시사편찬위원회, 1990: 2권 1장). 역대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의 투표 및 결과에 대한 정리로는 최원석(2006)의 연구가 있는데, 역시 투표행태는 분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2014년 6·4 부산시장선거에서의 투표행태와 관련하여서는 박범종(2014)의 최근 연구가 있다. 선거과정에서의 중요한 쟁점에 대한 정리가 주목되는데, 본고에서 제시하는 세 개의 쟁점과 대체로 같다. 그러나 투표행태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에 대한 검토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투표행태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매우 다양하다. 그리고 선거가 치러지는 시점에 따라 요인들의 영향은 달라진다. 따라서 2014년 6·4 부산시장선거에서 나타난 주요한 투표행태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특수한 상황에서 주요하게 대두되었던 쟁점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에서부터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2) 연구의 방법

연구사에서 나타나듯이 투표행태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매우 다양하다. 사회적·정치문화적·경제적 요인들이 상호 얽혀서 유권자들의 투표행태에 영향을 주고, 이러한 요인들 또한 특정한 시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본고에서는 2014년 6·4 부산시장선거 투표에서 영향을 주었던 다양한 요인들 중에서 당시의 상황과 투표자들의 인식에서 어떤 것들이 중요하게 여겨졌던가를 가려내어 그 영향을 검토하려고 한다. 다시 말하면 유권자의 투표에 영향을 미친 모든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2014년 선거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요인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려고 한다.

우선 Ⅱ에서는 기초정보의 확보를 위해 2014년 6·4 지방선거의 투개표 결과를 검토할 것이다. 전국과 부산의 투개표 결과에 대한 기초 통계를 정리하고 검토하여 6·4 지방선거의 결과와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이어 Ⅲ에서는 본 논문에서 검증할 가설을 도출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부산시장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투표행태에 영향을 준 많은 요인들 중에서 선거당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거론하였고 또 선거 뒤에도 가장 많이 회고가 되었던 요인들을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요인들의 영향에 대한 지배적인 기대를 가설로 제시할 것이다. Ⅳ에서는 이 가설들을 검증할 것이다. 검증에는 중앙선거관리위위원회가 제공하고 있는 통계를 이용할 것이다. 검증방법은 주로 상관관계에 의할 것이며 아울러 산점도 분석을 통해 시각적 결과를 같이 제시할 것이다.

분석의 중심은 어디까지나 시장선거에 둘 것이지만, 시장선거에서의 투표행태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좀 더 정확히 비교하고 평가하기 위해 시의원을 비롯한 다른 선거도 일정 정도 분석의 시야에 넣을 것이다. 그리고 Ⅴ에서는 이상의 분석결과를 정리하고 결론을 도출할 것이다.

Ⅱ. 6.4 지방선거의 투개표 결과

1. 16개 광역시도의 투개표 결과

<표 1>은 세종시를 포함한 17개 광역시도 단체장 선거의 기초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17개 선거구 가운데 새누리당은 경기를 비롯한 8곳, 새정치민주연합은 서울을 포함한 9곳에서 승리하였다.전체 득표율은 새누리당이 무효표를 포함한 비율에서 45.8%를 기록하였고, 새정치민주연합은 44.3%를 얻었다. 기타정당이 3.1%, 무소속이 4.5% 그리고 무효표의 비율은 2.42%였다.

부산과 울산을 제외하고는 모두 여당인 새누리당과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대결로 치러졌다. 부산에서는 새누리당의 서병수 후보와 무소속의 오거돈 후보 사이의 양자대결로 치러졌다. 무소속 오거돈 후보는 무효표를 포함한 득표율[2]에서 47.7%를 득표하여 당선자인 새누리의 서병수 후보의 득표율 49%에 거의 근접하였다. 울산에서는 여당인 새누리당에 대항하여 정의당 조

2) 본고에서 사용하는 득표율은 선관위에서 발표하는 득표율과는 달리 모두 무효표를 포함한 득표율을 사용한다. 이것은 통계분석의 일관성과 엄격성을 위해서이다.

승수 후보와 노동당 이갑용 후보가 각각 123,736표와 38,107표를 득표하여 합계 31.6%를 기록하였다. 광주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에 대항하여 무소속 강운태 후보가 201,666표, 무소속 이병완 후보가 16,249표를 얻어 합계 33.5%를 무소속이 득표하였다. 그러나 나머지 13개 광역시도에서는 모두 새누리와 새정치민주연합의 대결로 치러졌다.

<표 1>에서 보듯이 투표율이 가장 높은 광역시도는 전남의 65.6%였으며 그 다음이 62.8%의 제주 그리고 62.7%의 세종시였다. 투표율이 낮은 광역시도는 대구가 52.3%로 가장 낮았고 경기가 53.3%로 두 번째로 낮았다. 서울의 투표율은 58.6%로 부산, 대구 등 광역시보다 높았다. 일반적으로 도가 광역시보다 투표율이 높았지만 도시지역이 농촌지역보다 투표율이 많이 낮았던 과거의 익숙했던 경험은 이번에 현저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서울이 다른 광역시에 비해 높은 투표율을 보인 것도 이례적이었다. 6.4 지방선거는 각 지역의 선거이슈와 관심도에 따라 투표율이 상당히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무효투표율을 보아도 특별한 흐름이 보이지는 않는다. 가장 무효투표율이 높았던 지역이 울산인데, 울산의 투표율은 평균투표율 보다 낮았다. 반면 대구의 투표율은 52.3%로 가장 낮았는데, 무효투표율도 1.33%로 낮은 편이었다. 이처럼 어떤 광역시도는 낮은 투표율이 낮은 무효투표율과 대응하고 또 다른 광역시도는 낮은 투표율과 높은 무효투표율이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에서 볼 때 투표율이나 그 반대인 기권율 그리고 무효투표율은 전국적인 어떤 흐름에서 나왔다기 보다는 각 광역시도의 특수한 선거구도에서 나왔음을 알 수 있다.

〈표 1〉 6.4 전국 지방선거의 투표율 및 득표율(%)

시도명	투표율	무효투표율	새누리	새정연	기타정당	무소속
서울	58.6	0.92	42.6	55.6	0.8	
부산	55.6	3.32	49.0			47.7
대구	52.3	1.33	55.2	39.8	2.3	1.4
인천	53.7	1.06	49.4	47.7	1.8	
광주	57.1	2.35	3.3	56.5	4.3	33.5
대전	54.0	1.25	46.2	49.5	3.1	
울산	56.1	8.54	59.8		31.6	
세종	62.7	1.53	41.6	56.9		
경기	53.3	2.91	49.0	48.1		
강원	62.2	1.93	47.3	48.8	2.0	
충북	58.8	2.05	46.7	48.7	2.5	
충남	55.7	2.59	42.8	50.9		3.7
전북	59.9	3.76	19.7	66.6	9.9	
전남	65.6	4.63	9.1	74.4	11.9	
경북	59.5	3.44	75.1	14.4	7.1	
경남	59.8	2.40	57.4	35.2	5.0	
제주	62.8	1.77	58.9	33.9	5.4	
계	56.8	2.42	45.8	44.3	3.1	4.5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작성
주: 1. 통합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새정치당은 기타정당으로 묶음 2. 음영부분은 당선자 표시

2. 부산시장 선거의 투개표 결과

1) 투개표 현황

<표 2>는 제6회 부산시장 선거 투개표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유권자수와 기권수, 무효표수와 그 비율이 나와 있고, 서병수, 오거돈 후보의 득표와 득표율이 계산되어 있다. 부산의 총유권자는 2,932,179명인데 1,629,167명이 투표를 하였다. 그 가운데 무효표가 54,016표였고 유효표는 1,575,151표였다. 그 중 서병수 후보가 797,926표, 오거돈 후보가 777,225표를 얻었다. 두 후보의 득표수 차이는 20,701표에 불과하다. 새누리당 광역비례대표 득표수가 92만 1천198표임을 고려한다면 서병수 후보의 득표수 79만 7천926표는 높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3)]

〈표 2〉 제6회 지방선거 부산시장 선거 투개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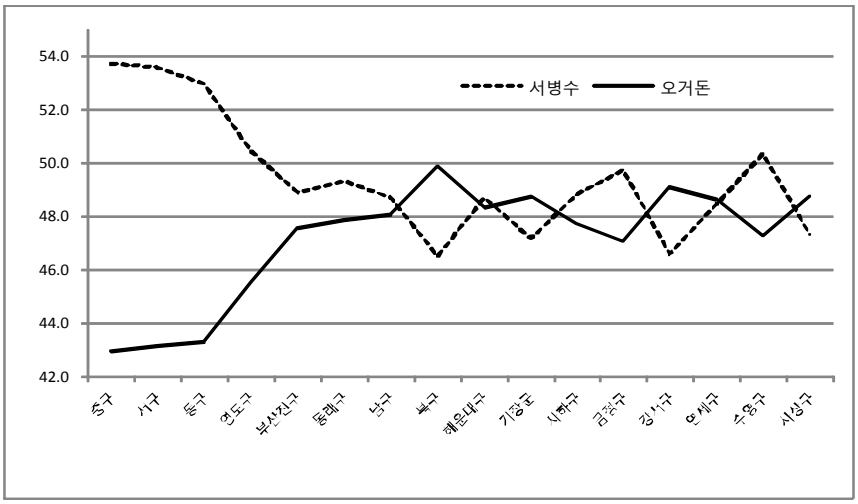
	선거인수	기권수		투표수	무효		유효투표수	서병수		오거돈	
	2,932,179	1,303,012	44.4	1,629,167	54,016	3.3	1,575,151	797,926	49.0	777,225	47.7
중구	41,868	18,464	44.1	23,404	771	3.3	22,633	12,576	53.7	10,057	43.0
서구	102,694	46,916	45.7	55,778	1,797	3.2	53,981	29,893	53.6	24,088	43.2
동구	83,350	35,620	42.7	47,730	1,749	3.7	45,981	25,288	53.0	20,693	43.4
영도구	115,944	55,623	48.0	60,321	2,423	4.0	57,898	30,436	50.5	27,462	45.5
부산진	329,022	148,795	45.2	180,227	6,300	3.5	173,927	88,196	48.9	85,731	47.6
동래구	229,691	99,099	43.1	130,592	3,639	2.8	126,953	64,409	49.3	62,544	47.9
남구	241,177	103,828	43.1	137,349	4,365	3.2	132,984	66,903	48.7	66,081	48.1
북구	251,760	111,900	44.4	139,860	5,026	3.6	134,834	65,060	46.5	69,774	49.9
해운대	342,080	153,813	45.0	188,267	5,550	2.9	182,717	91,704	48.7	91,013	48.3
기장군	107,360	44,566	41.5	62,794	2,558	4.1	60,236	29,611	47.2	30,625	48.8
사하구	285,319	133,096	46.6	152,223	5,288	3.5	146,935	74,278	48.8	72,657	47.7
금정구	212,138	91,961	43.3	120,177	3,823	3.2	116,354	59,797	49.8	56,557	47.1
강서구	59,758	24,734	41.4	35,024	1,493	4.3	33,531	16,332	46.6	17,199	49.1
연제구	174,407	74,554	42.7	99,853	2,853	2.9	97,000	48,384	48.5	48,616	48.7
수영구	149,975	67,014	44.7	82,961	1,963	2.4	80,998	41,788	50.4	39,210	47.3
사상구	205,636	93,029	45.2	112,607	4,418	3.9	108,189	53,271	47.3	54,918	48.8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작성
주: 각 후보의 득표율을 무효표를 포함하여 계산한 것임

한편 유효표대비 득표율은 서병수 후보가 50.3%, 오거돈 후보가 49.7%이지만 전체투표수 대비 득표율은 서병수 후보가 49%, 오거돈 후보가 47.7%이다. 그리고 나머지 3.3%는 무효표이다. 본고에서 제시하는 득표율은 다른 표기가 없는 한 모두 무효표를 포함한 전체투표수 대비 득표율이다. 선관위에서 발표하는 것은 무효표를 제외한 유효투표수에서의 득표비율이기 때문에 무효표 비율만큼 차이가 난다. 선관위 발표 통계를 쓰지 않은 것은 통계분석의 편리와 정확도를 위해서다.

3) 단순 비교상으로도 광역비례대표선거에서 새누리당을 찍은 무려 12만 3천272명의 새누리당 지지자가 서 당선인을 찍지 않았다는 계산이 가능하다(부산일보, 2014.6.9).

〈그림 1〉 구군별 후보자의 득표율(%)



<그림 1>은 서병수 후보와 오거돈 후보의 득표율을 구군별로 살펴 본 것이다. 두 후보의 득표율은 구군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중구, 서구, 동구 즉 부산의 원도심이라 부르는 선거구에서 서병수 후보가 상대적으로 많이 앞섰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구군에서는 양자 간의 차이가 크지 않은 가운데, 북구, 사상구, 연제구, 강서구, 기장군에서는 오거돈 후보가 더 많은 표를 얻었다.

2) 정당별·선거별 득표율의 관계

부산의 16개 구군에서 시장선거 투표행태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시장선거 이외의 선거에서의 정당별 득표율과의 관계를 알아본 것이 <표 3>이다. 모든 통계는 16개 구군단위로 정리하여 동시에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먼저 새누리당의 선거별 득표율간의 관계를 보면 시장선거득표율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광역비례대표 선거였다. 광역비례대표 투표는 정당지지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선거인데,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투표자는 시장선거에서도 새누리 후보를 강력히 지지하였다. 그리고 시장선거에서 새누리 후보를 지지한 투표자는 기초비례와 시의원 선거에서도 새누리당 후보를 역시 지지하였는데, 광역비례대표 투표보다는 상관계수의 값이 작았다. 시의원이나 구의원 선거의 경우 정당소속에 대한 고려가 기본적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후보자 개인에 대한 판단이 작용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구청장 선거는 이색적이었다. 구청장 선거는 다른 선거들과 큰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구청장 후보의 득표율은 다른 선거와 별 관계가 없었다. 부산에서 구청장 선거는 새누리 후보와 야당후보간의 경합이라기 보다 새누리 후보와 새누리 성향의 무소속 후보간의 경쟁이 많았기 때문이다.

〈표 3〉 선거별 새누리당 득표율의 상관관계

	시장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광역비례	기초비례
시장	1					
구청장	.052	1				
시의원	.657**	.096	1			
구의원	.261	.343	.486	1		
광역비례	.943**	-.078	.595*	.080	1	
기초비례	.747*	-.090	.856**	.174	.983**	1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주: 1. *. P<.05. **. P<.01 2. 기초비례의 표본은 9개 구군, 나머지는 16개 구군

새정연의 경우 시장후보가 없었기 때문에 시장선거와 다른 선거간의 관련성을 파악할 수는 없다. 정당지지를 나타내는 광역비례의 경우 다른 선거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데, 특히 기초비례와 구의원 그리고 시의원 선거와 높은 상관을 보여준다. 새정연 지지자들은 투표장에서 기초비례, 시의원과 구의원 그리고 구청장 선거 모두에서 새정연 소속 후보에게 투표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새정연 지지자의 경우 투표의 일관성이 높았다고 할 수 있다. 새정연 득표율에서 보이는 이러한 투표의 일관성은 시장후보를 내지 못한 시장선거 투표에서 상당한 고심을 하도록 하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광역비례 대표 투표율과 매우 높은 상관을 보인 기초비례 투표율은 다른 선거와는 의미있는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고 있다. 기초비례의 경우 표본의 크기가 크지 않아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것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4〉 선거별 새정연 득표율의 상관관계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광역비례	기초비례
구청장	1				
시의원	.519	1			
구의원	.791**	.775**	1		
광역비례	.621*	.740**	.799**	1	
기초비례	.506	.730	.257	.927**	1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주: 1. *. P<.05. **. P<.01 2. 구청장 표본은 12개, 시의원 14개, 구의원 17개, 광역비례 17개 그리고 기초비례의 표본은 9개 구군

진보정당계열에서는 충분한 후보를 내지 못한 관계로 표본이 적어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기 어렵다. 시의원득표율과 구청장득표율에서 높은 상관관계가 확인이 되긴 하지만 다른 선거간의 상관관계는 크게 발견되지 않는다. 진보정당 계열의 경우 선거별로 독자적인 득표율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물론 표본의 제한이라는 성격과 함께, 진보정당계열의 경우 하나의 특징으로 유형화할 수 있는 구조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개인적 역량에 따른 득표율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표 5〉 선거별 진보정당 득표율의 상관관계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광역비례
구청장	1			
시의원	.978*	1		
구의원	-.836	.037	1	
광역비례	.790	.173	.402	1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주: 1. *. P<.05. **. P<.01 2. 구청장 4개, 시의원 11개, 구의원 14개, 광역비례 16개 구군

Ⅲ. 주요 요인의 검토와 연구 가설

선거에는 무수히 많은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 후보 개인의 경쟁력은 물론이고 소속정당에 대한 지지, 공약, 개인적인 친분, 선거전략, 정치전반에 대한 인식 등 많은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의 결과에 대한 평가는 매우 다양하게 나올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선거가 끝난 후 투표와 그 결과에 대해 수많은 요인들이 거론되었다.

그렇지만 본고에서는 세 가지 요인(투표율, 세대별 투표, 무효투표)에 중점을 두려고 한다. 이 세 가지 요인이 2014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세 요인은 선거가 치러지는 기간 동안 그리고 선거가 끝난 후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던 요인들이다[4]. 선거기간을 통해 투표율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는 전국적 관심사였다. 그리고 세대별 투표는 이번에도 선거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었으며, 실제로 지난 대선과 같이 당락을 갈랐다는 분석이 많았다. 그리고 부산과 경기에 특수했던 것으로서 무효표에 대한 관심은 지대하였다. 무효표가 조금만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다면 부산과 경기에서는 당락이 바뀌었을 수도 있었다. 이 세 가지 변수를 좀 더 검토하고 각각에 대해 가설을 제기하기로 한다.

1. 투표율

선거기간 내내 투표율은 전국적 관심사였다. 여야가 타겟으로 하는 세대가 다르긴 하였지만 모두 투표율의 상승을 위해 노력하였는데, 그 결과 6.4지방선거의 투표율은 많이 높아졌다. 한 때 우리사회에는 선거의 무관심이 주요한 관심사가 된 적이 있다. 특히 젊은층에서 선거에 대한 무관심이 많이 나타났고 그 결과 젊은층의 투표율은 노년층에 비해 항상 낮은 것으로 인식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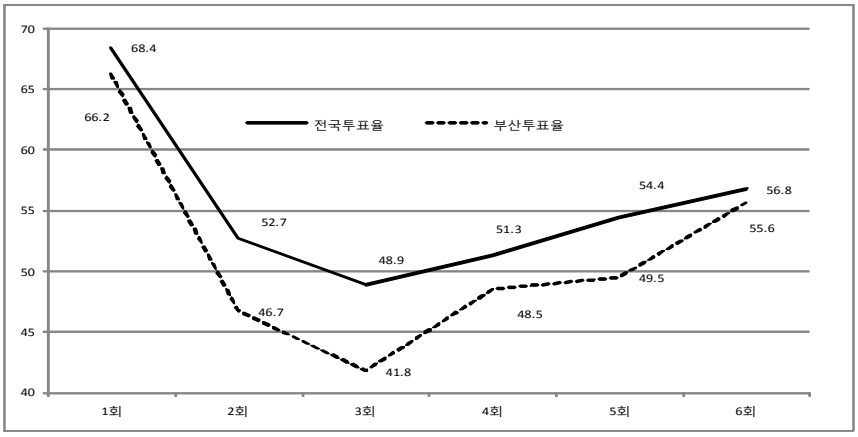
4) 2014년 6·4 지방선거 직후 나온 박범종(2014.12)의 연구도 부산시민의 선택에서 두 후보간의 진흙탕싸움, 대통령 마켓팅, 투표율, 고창권 후보의 사퇴 그리고 무효표의 대량발생이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보고 있다(박범종, 2014: 104-106). 박범종은 높은 투표율이 누구에게 유리했는가 하는 질문과 함께 무효투표의 대량발생 또한 누구에게 유리한 것이었는가를 묻고 있다. 이에 대한 답을 내리지는 않고 있지만 이것이 당시 부산 유권자들이 가장 궁금해 했던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박범종이 주요한 요인으로 거론한 진흙탕싸움과 대통령마켓팅은 투표율로 포괄될 수 있으며, 고창권 후보의 사퇴는 무효표와 관련된 문제라고 볼 수 있는 바, 여기에 자명하지만 당락에 큰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는 세대별 투표를 가미하면 본고에서 선정한 3대 쟁점과 사실상 같다.

왔다. 그리하여 상대적으로 야당에 우호적인 젊은층이 투표장으로 많이 나오면 야당에 유리해지고 여당에는 불리해 진다는 공식이 성립되어 왔다.

이 때문에 야당은 젊은 층들을 투표장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항상 주요한 선거전략으로 등장했고, 이것은 투표율 상승은 곧 야당 유리라는 공식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지난 대선때 이런 공식은 깨졌다. 높은 투표율은 노년층의 대결집에 의해서도 가능하다는 것이 나타났다. 높은 투표율이 야당의 유리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여당의 유리를 가져왔던 것이다.

2014년 부산시장 선거에서 투표율은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사실 투표율은 어느 연령계층을 지렛대로 하여 높아지는가에 따라 유리함과 불리함이 언제든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서 우선 지방선거 투표율의 추이를 먼저 검토해 보자. 전국과 부산의 지방선거 투표율을 보면 제1회 지방선거 때 부산의 투표율은 66.2%로까지 올라갔었지만, 3회 때에는 41.8%로까지 떨어졌다. 이후 증가하여 6.4 지방선거에서는 55.6%를 기록하였다. 부산의 투표율은 전국평균에 비해 항상 낮았다. 특히 3회 지방선거 때에는 전국과의 차이가 크게 났다. 이후 차이가 좁혀지다가 지난 2014년 6.4 선거에서는 전국과의 격차가 크게 줄어들었다. 2014년 부산의 투표율은 전국평균과 거의 차이가 없었다. 부산의 투표율 그 자체는 부산만의 어떤 상항에 의해 특별히 좌우되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 전국과 부산의 지방선거 투표율 추이(%)



투표율의 궁극적 효과는 세대별 투표율의 차이에 따라 달라지지만, 넓게 볼 때 2014년 6.4 지방선거는 전국선거의 틀이 강하게 작용하는 가운데 치러졌다. “정권구조론과 정권심판론이 격돌한 6·4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은 결국 정권구조론의 손을 들어줬다. 집권 새누리당은 경기·인천 등 전체 17곳 광역단체장 중 8곳에서 당선자를 내며 선전했다. '세월호 침몰'이라는 전대미문의 대참사 속에서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막판 도와달라는 새누리당의 호소에 유권자들이 어느 정도 화답한 모양새가 됐다. 한 마디로 말해, 세월호 참사와 함께 침몰 위기에 있던 박근혜 정권을 가까스로 구해 준 셈이다”(오마이뉴스, 2014.6.5). 6.4 지방선거는 위기에 빠진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 여당에 우호적인 사람들을 대거 투표장에 나오게 만들었다.

이것은 부산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부산선거에서도 대통령의 눈물은 큰 영향을 미쳤다.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5일 “부산시장 선거는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들인 반칙 선거”라며 오 후보의 패배에 아쉬움을 나타냈고,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도 “오 후보는(서 후보보다는) 박 대통령과 싸운 것”이란 평가를 내렸다(국제신문, 2014.6.5). 이러한 상황을 투표율과 연관지어 본다면 이번 6.4 지방선거도 지난 대선에서 나타났던 것과 유사한 즉 투표율이 높을수록 여당이 유리한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추론에 고려해야 할 것이 또 하나 있다. 통합진보당 후보의 사퇴문제이다. 진보정당 지지자들은 후보가 사퇴한 데 대한 실망감으로 투표장에 가는 것을 포기했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보수층은 야권이 단일화되는 것을 우려해 더 결집했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현실로 나타났다면 통진당 후보의 사퇴는 결과적으로 보수층의 결집을 가져오는데 기여함으로써 여당에 유리한 투표율의 상승을 가져왔을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선거 후 평가들이 그것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자신의 지지성향을 드러내지 않았던 ‘숨은 표’가 마지막에 투표장에서 주로 새누리당을 지지했을 가능성이다. 새누리당이 충청권 전패로 고전하는 상황에서도 경기와 인천을 차지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이런 숨은 표의 결집 덕분이라고 보는 시각이 그것이다”(연합뉴스, 2014.6.5). 그리하여 ‘박빙의 접전지였던 경기와 부산에서 불거진 통합진보당 후보들의 잇단 사퇴는 통진당 지지표가 야당 후보에게 몰린 것 못지않게 보수표를 결집하는 '마이너스 효과'를 유발했을 수 있다. 이럴 경우 투표율의 증가는 새누리당에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데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6·4 부산지방선거에서 투표율이 높아지면 새누리당이 유리했을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가설은 다음과 같다.

귀무가설: 투표율은 후보의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대립가설: 투표율이 높으면 새누리당 후보가 유리했을 것이다.

2. 세대별 투표

과거 대선에서 충분히 검증되었듯이 세대별 정당선호는 이번 선거에서도 역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다. 이에 대한 검증은 선거가 끝난 후 많이 보도되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젊은층과 고령층의 지지 성향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서울시장 선거를 기준으로 20대는 69.9%, 30대는 74.5%가 야당 후보를 지지했고, 60대 이상은 76.5%가 여당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이런 흐름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최근 3차례 선거에서 20, 30대의 야당 후보 득표율은 계속 올라가는 반면, 60대 이상은 여당 후보 득표율이 치솟고 있습니다”(JTBC, 2014.6.5).

투표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출구조사 결과도 이러한 경향을 뒷받침한다. “5일 공개된 지상파 방송 3사의 6·4 지방선거 출구조사 분석 결과를 보면, 20~30대는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에, 50~60대는 여당인 새누리당에 표를 몰아줬다. 가장 접전을 벌인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는, 20대의 65.4%, 30대의 71.4%가 김진표 새정치연합 후보를 지지했다고 답했다. 남경필 새누리당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각각 34.6%, 28.6%에 그쳤다. 반면 50대의 60.2%와 60대의 77.6%는 남

후보를 지지했다. 김 후보에 대한 이들의 지지율은 각각 39.8%, 22.4%에 그쳤다. 40대의 선택은 김 후보 쪽(63.9%)이었지만 20~30대보다는 지지의 정도가 다소 약했다"(한겨레, 2014.6.5).

경계에 있는 40대도 야권에게 더 많이 표를 주었다. "6일 지상파 방송 3사의 지방선거 출구조사 요약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울산, 경북, 제주 등 3곳을 제외한 나머지 14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40대 유권자가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 후보들에게 가장 많은 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의 '텃밭'인 부산과 대구에서도 야당 후보들이 40대로부터 각각 64.7%, 55.4%의 과반 득표율을 기록했다. 경남 또한 40대 47.9%가 새정연 김경수 후보를 찍어 새누리당 홍준표 후보(47.3%)보다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국제신문, 2014.6.6).

그리하여 40대의 선택은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이번 선거에서도 20~30대와 50~60대의 지지는 극명하게 엇갈렸다. 상대적으로 유동적인 40대의 투표가 이번 선거 결과를 상당 부분 좌우한 것으로 보인다"(한겨레, 2014.6.5). "이번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40대의 '야당 쏠림' 현상은 최근 다른 선거와 비교해서도 두드러진다. 2012년 총선 출구조사 결과 40대의 46.1%만이 야당(당시 민주당)을 지지했고, 같은 해 대선에서도 55.6%가 민주당 문재인 후보에게 표를 던진 바 있다. 올해 지방선거 대다수 지역에서 60%를 넘은 것과 차이가 뚜렷하다'(국제신문, 2014.6.6). '실제 이번 선거의 접전 지역에서 새누리당은 40대 지지율을 35% 이상 확보한 지역(부산·경기·인천)에서만 승리했다"(한겨레, 2014.6.5).

그렇지만 고령화추세에 편승한 50-60대의 새누리당 몰표는 40대까지 가세한 야당을 이기게 한 원동력이었다. "야당인 김부겸 새정치연합 후보가 40%의 득표율을 얻으며 선전한 대구의 경우 20대, 30대, 40대의 김 후보 지지율은 각각 57.6%, 62.5%, 55.4%로 40대까지는 김 후보가 이겼다. 그러나 50대와 60대 이상의 김 후보 지지율이 각각 38.7%와 15.6%에 그치는 극심한 불균형으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한겨레, 2014.6.5).

부산에서도 세대별 투표가 주요한 경향이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49.3%로 선전한 부산의 오거돈 무소속 후보에게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 김부겸·오거돈 후보가 선전한 이유로, 이전의 '지역주의 투표'가 '세대간 투표' 양상으로 전이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경우, 앞으로의 선거에서 부산·대구의 이변에 대한 기대감을 키울 수 있다. 그러나 경남·경북·전남·전북·광주 등에선 아직 이런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지 않았다"(한겨레, 2014.6.5).

부산에서의 세대별 투표경향은 이미 선거기간 중에도 여론조사에 나타났었다. "새누리당 서 후보는 50대에서 44.1%, 60세 이상에서 58.8%의 지지율을 얻어 50대 39.2%와 60세 이상 20.2%를 기록한 오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여유있게 따돌렸다. 하지만 오 후보는 40대 이하 전 연령에서 서 후보에 우위를 보여 40대 51.9%, 30대 39.4%, 19~29세 45.3%의 지지율을 보였다. 서 후보는 40대 26.7%, 30대 22.5%, 19~29세 22.2%였다. 지난 4월의 여론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40대는 오거돈 후보, 60세 이상은 서병수 후보의 지지율 쏠림 현상이 더욱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부산일보, 2014.5.26:3).

이런 흐름을 고려할 때 이번 6·4 부산시장선거에서도 세대별 투표는 두드러진 특징이었다고 할 수 있다. 가설은 다음과 같다.

귀무가설: 연령대별 두 후보의 지지율은 차이가 없었을 것이다.
대립가설: 연령대별로 두 후보의 지지율에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

3. 무효표의 향방

6.4 지방선거가 끝난 뒤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던 것이 무효표였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치러졌던 무효표는 박빙의 승부로 치러졌던 부산과 경기에서 이례적으로 많이 나왔다. 부산과 경기 모두 무효표는 당선자와 차점자의 표차이보다 월등히 컸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무효표가 승패를 가른 요인으로 지목되었다. 그렇지만 무효표가 영향을 미치는 형태와 방식에 대해서는 몇 가지 다른 시각들이 존재한다.

첫 번째 시각은 그 어느 편도 들기 싫은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부산의 민심은 절묘했고, 또 매서웠다. 특히 6·4 부산시장 선거에서 쏟아진 무효표 5만4,016장(전체 투표수 대비 3.32%)은 민심의 회초리로 읽힌다. 불과 1.31%포인트(2만701표) 차이로 승부가 갈린 선거에서 5만4,016장의 표심은 마음만 먹으면 결과를 뒤집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끝내 새누리당 서병수 당선인과 무소속 오거돈 후보 어느 쪽에도 마음을 열지 않았다'(국제신문 2014.6.5).

둘째는 선거 며칠 전 사퇴한 통합진보당 후보들의 표가 대거 사표처리 되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이 주장에 따를 경우 사퇴의 시기가 당락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주장으로 연결된다. "전체 무효표가 새누리당 서병수 당선인과 무소속 오거돈 후보 간 표차(2만701표)의 2.6배나 된다는 부분은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사전투표 하루 전에 사퇴한 통합진보당 고창권 후보와 연관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투표자 수가 거의 같은 부산시교육감 선거의 무효표는 2010년 선거(5만398표)보다 8,300여 표 증가하는 데 그쳤는데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3만3,900여 표나 늘었기 때문이다"(국제신문, 2014.6.5). 실제로 고창권 후보의 공식 사퇴는 5월 30일 사전투표를 시작한 지 한나절 후에 이루어졌는데, 투표용지에 '사퇴'라는 표시가 없었고, 투표소에도 안내문이 늦게 붙었다. 안내문도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종이에 인쇄되어 투표장 입구에 붙어 있었다. 많은 유권자들이 고창권 후보의 사퇴 사실을 모른 채 투표해 무효 처리된 경우가 많았을 것이라는 시사이다. 실제로 그런 경우도 적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럴 경우 통합진보당 후보의 사퇴 시점이 빨랐거나 아예 출마를 하지 않았다면 이 표가 새정치연합 후보나 다른 후보에 쏠려 중대 변수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연합뉴스, 2014.6.5).

셋째는 진보성향이나 야권 성향의 유권자들이 야권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투표를 유보했을 가능성이다. "고 후보를 지지하던 진보 성향 유권자 일부가 오거돈 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새로운 부동층이 돼 '무효'로 의사를 표현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국제신문, 2014.6.5). 앞에서 보았듯이 정치적 견해에 따라 일관된 투표성향을 보이는 새정연지지자들은 시장선거에서 후보가 없는 것에 대해 혼란을 겪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하여 "야권을 대표해 나온 오 후보가 "나는 야권 단일후보가 아니다"고 주장하자, 혼란에 빠진 정통 야당 지지자와 진보 세력이 제1야당에 '무효표'로 책임을 물었다는 분석도 나온다"(국제신문, 2014.6.5). 즉 "무효표가 이처럼 크게 늘어난 것은 기초단체장이나 지방의원 선거에 참여한 야당 성향 유권자들이 막상 시장 선거에서는 입장

표명을 유보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오 후보가 선거기간 내내 야당과 거리두기를 한 데 따른 야당 지지층 또는 진보성향 유권자들의 반발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부산일보, 2014.6.5). 어쨌든 무효표는 부산에서 당락에 큰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는 요인이었다. 가설은 다음과 같다.

귀무가설: 무효표의 대량발생은 후보의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것이다.
대립가설: 무효표의 대량발생은 후보의 당락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Ⅳ. 가설의 검증

이 장에서는 위에서 검토한 세 개의 주요 요인에 대한 가설을 통계적 분석을 통해 검증해 보기로 한다.

1. 투표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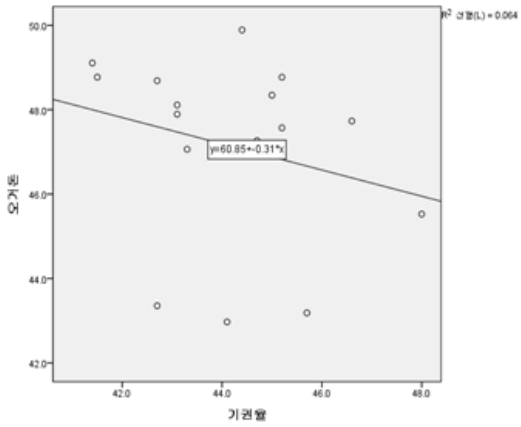
먼저 전체투표율이 두 후보의 득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표 2>에는 기권율과 두 후보의 득표율이 나와 있다.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그림 3>과 <그림 4>이다. 100에서 기권율을 빼면 투표율이 되기 때문에 이 그림은 투표율과 두 후보의 득표율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우선 두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기권율과 두 후보의 득표율이 밀접한 선형관계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제로 추세선의 R^2값의 크기가 매우 작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기권율이 두 후보의 득표율을 설명하는 설명력이 매우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 3>에서 보면 기권율이 높을수록 즉 투표율이 낮을수록 오거돈 후보의 득표율은 낮아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투표율이 높을수록 오거돈 후보의 득표율은 미약하지만 높아지는 관계에 있다. 반면 서병수 후보의 경우 기권율이 높을수록 득표율이 높아지는 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투표율이 낮은 구군에서 서병수 후보의 득표율이 높았다. 이러한 사실은 투표율이 높은 곳에서 서병수 후보는 미약하지만 불리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과거의 선거와 비교할 때 2014년 6회 선거의 투표율은 상당히 높았는데, 이러한 투표율의 상승이 미약하지만 서병수 후보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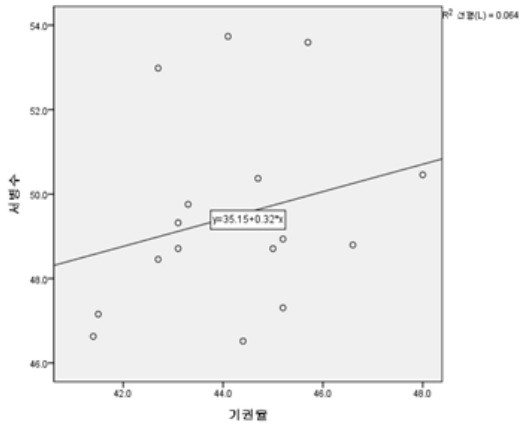
그러나 크게 볼 때 기권율 또는 투표율이 어느 한쪽 후보에 특별히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았다. 즉 투표율 자체는 이번 시장선거에서 중립적이었다. 투표율이 높아지면서도 두 후보 어느 쪽도 특별히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모든 계층에서 투표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 연령대별 투표율과 두 후보의 득표율을 보기로 한다.

<그림 5>와 <그림 6>은 60세 이상 인구비율과 투표율 그리고 기권율을 본 것이다. 여기서도 두 변수간의 관계는 매우 약하게 나타나고 있다. 설명력을 나타내는 R^2값은 역시 매우 작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약하지만 60세 이상의 인구비중이 높은 구군에서 투표율은 낮아지는 경향이 발견된다. 2014년 6.4 선거에서 60세 이상 연령대들이 특별히 투표율 상승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지는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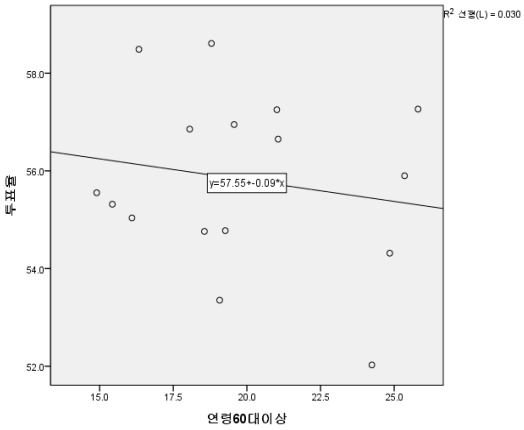
〈그림 3〉 구군별 기권율과 오거돈 후보 득표율 산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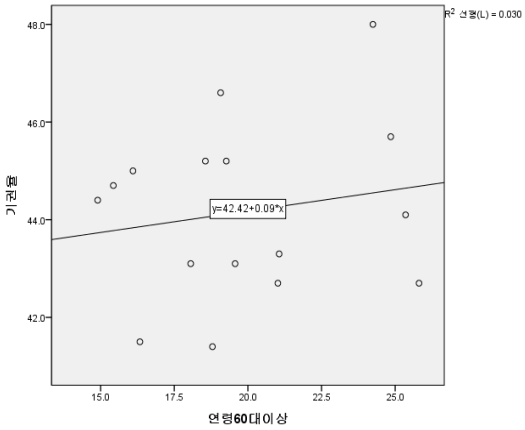
〈그림 4〉 구군별 기권율과 서병수 후보 득표율 산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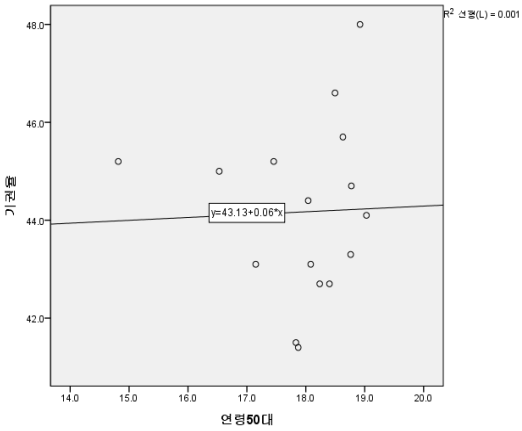
〈그림 5〉 구군별 60세이상 인구비율과 투표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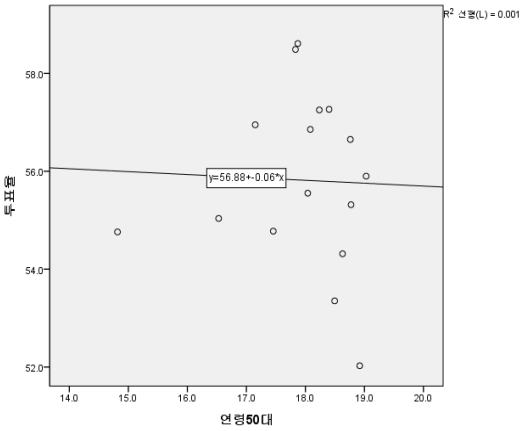
〈그림 6〉 구군별 60세이상 인구비율과 기권율



〈그림 7〉 구군별 50대 인구 비율과 기권율



〈그림 8〉 구군별 50대 인구 비율과 투표율



<그림 7>과 <그림 8>은 50대 인구비중과 투표율을 본 것이다. 우선 R2값에서 알 수 있듯이 두 변수간의 선형정도는 매우 미약하다. 그리고 60대보다 더 약하게 나타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60대에서 나타났던 흐름이 그대로 50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50대에서도 60대와 마찬가지로 투표장에 특별히 많이 나갔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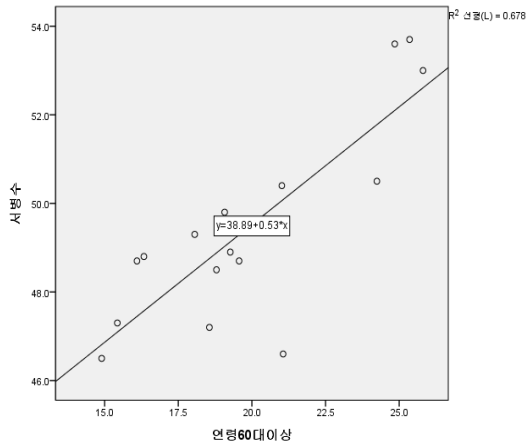
여기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연령대에서도 대체로 비슷한 경향이 나타난다. 과거의 선거에 비해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의 투표율이 높았던 것은 특정연령대의 투표율이 높아져서가 아니라 모든 연령대에서 고르게 높아졌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투표율 자체는 후보의 당락에 주요한 변수가 되지는 않았다. 투표율은 이번 부산시장 선거결과에 중립적이었다.

2. 세대별 투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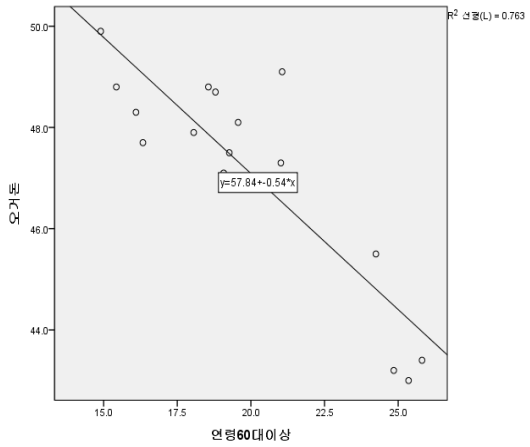
연령대별 투표율이 당락에 중립적이었다고 해서 연령대별 투표결과가 득표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 이미 출구조사에서 확인되었듯이 최근의 선거는 세대별 선거의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여당인 새누리당을 지지하고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야당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림 9>와 <그림 10>은 구군별 60세 이상 인구비율과 후보의 득표율과의 상관을 본 것이다. 우선 두 변수간의 관계, 즉 연령대[5]의 비중이 득표율을 설명하는 R^2값이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병수 후보의 경우 60대 이상 인구비중이 득표율을 설명하는 설명력이 68%에 이른다. 오거돈 후보의 경우 그 값은 더욱 커서 76%에 이르고 있다.

〈그림 9〉 구군별 60대 이상 인구비율과 서병수 후보 득표율



〈그림 10〉 구군별 60대 이상 인구비율과 오거돈 후보 득표율



5) 연령대별 인구구성비 자료는 동읍면/5세별 주민등록인구(2012)년 자료로서 2012년 12월 31일 현재의 통계청자료를 토대로 작업을 하였다.

우선 서병수 후보의 경우 60세 이상 인구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득표율이 높아지는 정의 관계가 나타나는데, 60세 이상 인구비중이 1% 높아질 때 득표율은 0.53%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에 반해 오거돈 후보는 60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득표율이 떨어지고 있으며, 60세 이상 인구비중이 1% 증가할 때 득표율은 0.54%가 떨어지는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세대별 투표는 2014년 6.4 지방선거의 가장 확실한 경향이었다.

세대별 투표의 영향을 각 세대별로 좀 더 세밀하게 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한 것이 <표 6>과 <표 7>이다. <표 6>에는 구군별 연령대별 비중과 서병수 후보의 득표율에 관한 상관분석 결과가 나와 있고 <표 7>에는 오거돈 후보의 상관분석 결과가 나와 있다.

〈표 6〉 연령대와 서병수 후보의 득표율간의 상관관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	서병수
20대	1					
30대	-.240	1				
40대	.381	.072	1			
50대	.380	-.678**	-.394	1		
60	-.518*	-.412	-.824**	.406	1	
서병수	**-.242**	**-.605***	**-.472**	**.413**	**.824****	1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 P<.05, **. P<.01

먼저 서병수 후보의 득표율과 구군별 연령별 인구비중 간의 상관분석 결과를 보면 20대에서 40대까지는 상관계수값이 마이너스로 나타난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득표율은 떨어지는 관계에 있었음을 말해준다. 반면 5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플러스의 상관 관계가 확인이 되는데, 50대 이상 인구비중이 높은 구군에서 서병수 후보는 높은 득표를 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런데 캐스팅 보트를 쥔 40대는 서병수 후보보다는 오거돈 후보에게 더 친화적인 투표행태를 보였다. 40대에서 통계적 유의성은 서병수 후보에게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오거돈 후보에게서는 확인이 되고 있다. 특히 서병수 후보에게 있어 30대는 가장 반대가 많았던 반면 60대 이상에서는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반면 오거돈 후보는 30대와 40대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던 반면 60대 이상에서는 거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가장 젊은 연령대인 20대의 경우 서병수 후보보다는 오거돈 후보의 득표율과 정의 관계를 보였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볼 때 60대 이상은 서병수 후보를 확실히 지지하고 오거돈 후보는 30대에서 분명한 우위를 보였으며 40대에서도 유의미한 우위를 보였다. 그렇지만 20대에서는 오거돈 후보가 그리고 50대에서는 서병수 후보가 긍정적인 지지를 받았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표 7〉 연령대와 오거돈 후보 득표율의 상관관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	오거돈
20대	1	-.240	.381	.380	-.518*	.318
30대	-.240	1	.072	-.678**	-.412	.581*
40대	.381	.072	1	-.394	-.824**	.538*
50대	.380	-.678**	-.394	1	.406	-.428
60	-.518*	-.412	-.824**	.406	1	-.874**
오거돈	.318	.581*	.538*	-.428	-.874**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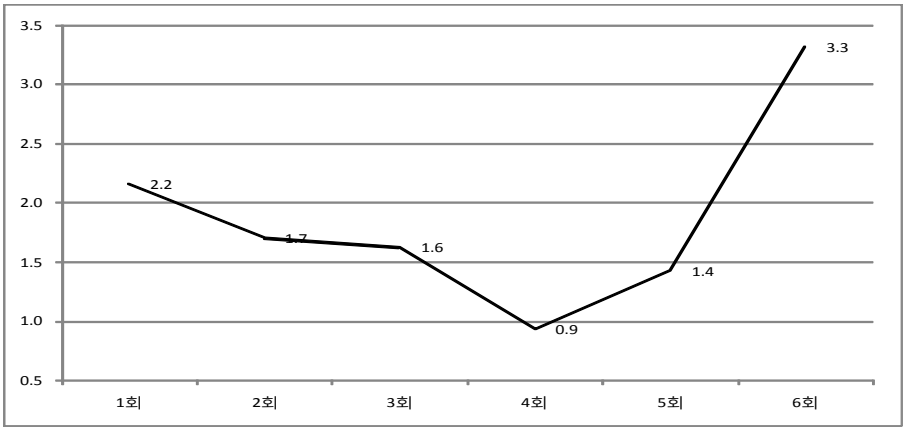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 P<.05, **. P<.01

3. 무효투표율의 영향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두드러진 특징의 하나는 높은 무효투표율이다. <그림 5>는 역대 부산 시장선거에서의 무효투표율을 보여준다. 1회 때 무효투표율은 2.2%였는데, 이후 계속 떨어지다가 4회 때는 0.9%로까지 낮아졌다. 5회 때는 1.4%로 다소 높아졌지만 여전히 과거 평균에 비해 낮았다. 그러던 것이 2014년 6회 때 3.3%로까지 증가하였다. 투표자 1,000명 가운데에서 33명이 투표장에 나와 무효표를 던진 것이다.

무효표의 흐름을 좀 더 파악하기 위하여 구군별 무효표의 비율을 역대 선거별로 정리하여 비교해 보았다. 음영으로 되어 있는 구군은 역대 시장선거에서 무효표의 비율이 가장 낮았던 곳이다. 6번의 선거를 치르면서 동래구, 남구, 수영구가 각각 2회 씩 가장 낮은 무효표의 비율을 보여, 지역에 따라 무효표의 비율이 달리 나타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구군별로 무효표가 나타나는 것에 어떤 경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무효표는 지역적 요인 그 자체에 의해서 라기 보다는 각 선거별로 투표자들의 선택의 결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림 5〉 역대 부산 시장선거에서의 무효투표율(%)



〈표 8〉 역대 부산시장선거에서 무효표의 비율(%)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부산광역시	2.2	1.7	1.6	0.9	1.4	3.3
중구	2.5	1.7	2.1	1.1	2.1	3.3
서구	2.5	1.8	2.1	1.1	1.5	3.2
동구	2.6	1.7	1.9	1.6	1.9	3.7
영도구	2.4	1.7	1.7	1.2	1.7	4.0
부산진구	2.0	1.7	1.7	0.9	1.5	3.5
동래구	2.5	1.5	1.4	0.7	1.2	2.8
남구	2.0	1.7	1.4	0.8	1.0	3.2
북구	1.9	1.8	1.4	0.8	1.2	3.6
해운대구	2.4	1.5	1.5	0.8	1.3	2.9
기장군	2.0	2.5	2.2	1.5	2.6	4.1
사하구	2.1	1.6	1.5	0.8	1.5	3.5
금정구	2.6	0.8	1.7	1.0	1.4	3.2
강서구	1.7	2.2	2.2	1.9	2.5	4.3
연제구	1.6	1.7	1.5	0.8	1.3	2.9
수영구	2.2	1.5	1.5	0.7	1.2	2.4
사상구	3.1	1.7	1.7	1.0	1.3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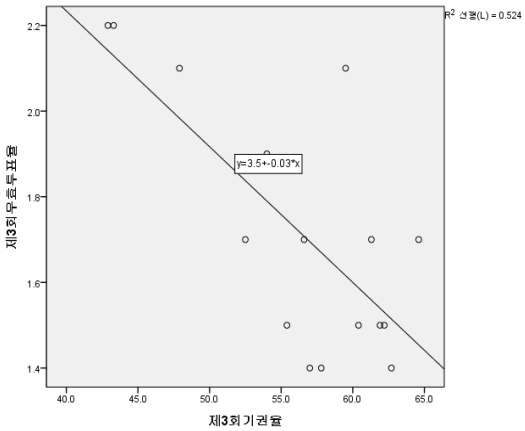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그림 11>과 <그림 12>는 제3회 지방선거와 제6회 지방선거 부산시장 선거에서 나타난 구군별 기권율과 무효표 비율의 관계를 본 것이다. 제3회 선거의 경우 기권율이 높아지면 무효표의 비율이 줄어드는 흐름이 상당히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것은 기권율이 높을수록 무효투표율은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권은 개인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하기도 하지만 찍을 후보를 정하지 못해 기권을 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시사한다. 찍을 후보를 정하지 못한 유권자들이 기권을 많이 하면 일단 투표장에 나온 유권자들이 무효표를 만들 가능성은 줄어든다는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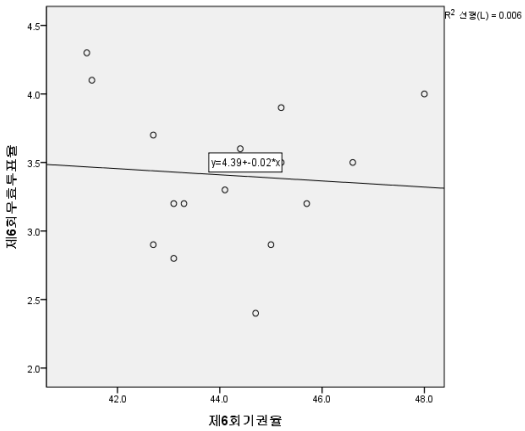
반면 6회 지방선거에서 기권율과 무효투표율 사이의 역의 선형관계는 거의 확인하기 힘들 정도이다. 이것은 기권율이 낮아진 탓도 있지만, 투표장에 나온 유권자들은 투표장에서도 후보를 정하지 못하고 망설이다가 무효표를 만든 경우도 많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여기서 모두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1회에서 6회까지의 기권율과 무효투표율을 모두 비교하여 보면 1회와 6회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2회-5회가 같은 추이를 보이고 있다. 1회와 6회는 다른 지방선거 때보다 투표율이 높았던 해이다. 투표율이 높을 경우 투표장에 나와서도 무효표를 던지는 경향이 높아지는 것을 시사한다.

무효투표율이 어느 후보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를 살펴보자. 투표장에는 나왔지만 투표장 안에서 망설이다 무효표를 던진 표가 어떤 성격의 것인지를 파악해 보려는 것이다. <그림 13>과 <그림 14>는 무효표비율과 서병수, 오거돈 후보의 득표율의 산점도를 그린 것이다. 우선 두 그림에서 먼저 확인되는 것은 두 후보의 득표율 모두 무효표와 별 상관관계를 갖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기본적으로 무효표는 두 후보의 득표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

〈그림 11〉 제3회 부산지방선거에서 기권율과 무효투표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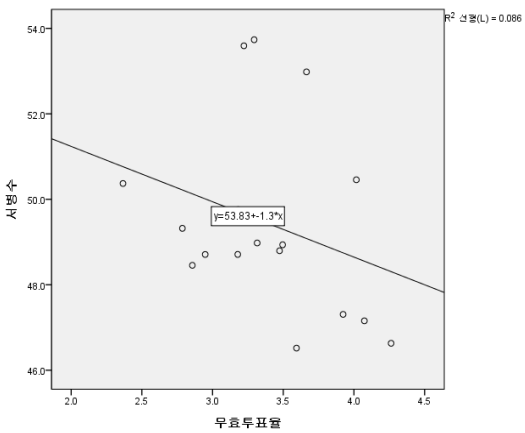


〈그림 12〉 제6회 부산지방선거에서 기권율과 무효투표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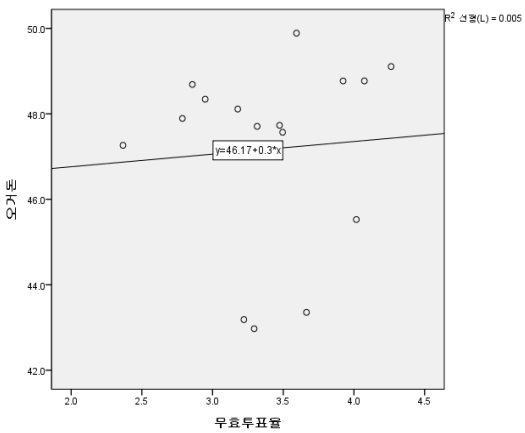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세한 차이는 지적할 수 있다. 무효투표율이 높은 곳에서 오거돈 후보의 득표율이 아주 약하지만 높은 경향이 보인다. 선거후 대부분의 분석에서 나왔던 것과는 반대되는 결과이다. 산술적으로 무효표의 절반만이라도 오거돈 후보에게 갔으면 오거돈 후보가 승리했으리라는 계산으로 인해 무효표의 대량발생이 오거돈 후보에게 불리한 것으로 해석되는 게 일반적이었다. 그렇지만 산점도에 나타난 결과는 무효표가 오거돈 후보에게 반드시 불리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무효표의 대량발생은 오거돈 후보에게 표를 던질 수 있었던 사람들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서병수 후보를 찍을 수도 있었던 투표자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림 13〉 무효투표율과 서병수 후보 득표율



〈그림 14〉 무효투표율과 오거돈 후보 득표율



시장선거에서 나타난 무효표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보기 위해 선거별 무효표비율을 비교하고 그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해 보았다. 우선 통계표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시장,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광역비례, 기초비례 선거에 나타난 무효표 비율을 비교하여 보면 시장>구의원>시의원=광역비례>구청장의 순으로 무효표의 비율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시장선거에서 무효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그 다음이 구의원인데, 구의원선거의 경우 유권자들의 낮은 관심이 중요한 원인일 것이다.

그런데 시장선거에서의 무효표비율은 다른 선거와는 구분되는 것이 확연히 드러난다. 각 선거별 무효표 비율 간 상관관계를 보면 시의원과 광역비례, 구의원과 광역비례의 무효표비율만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으며, 상관의 정도도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비례선거에서 무효표를 던진 사람은 시의원과 구의원비례선거에도 무효표를 같이 던지는 경향이 컸던 것으로 확인된다.

〈표 9〉 6.4 부산지방선거별 무효투표율의 상관관계

	시장	광역비례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기초비례
시장	1					
광역비례	.322	1				
구청장	-.364	-.162	1			
시의원	.118	.696**	-.118	1		
구의원	.457	.725**	-.465	.433	1	
기초비례	.120	.949**	.165	.564	.502	1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주: 1. *. P<.05. **. P<.01 2. 기초비례의 표본은 9개 구군, 나머지는 16개 구군

그러나 시장선거에서 던져진 무효표의 비율은 다른 어떤 선거와도 통계적 유의성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시장선거에서 무효표는 다른 선거와는 독립적으로 던져졌다. 나아가 시장선거에서의 무효표비율이 광역비례선거보다 훨씬 높은데, 이것은 정당선택보다 시장후보선택에서 망설임이 더 많았다는 시사로 이해된다.

Ⅴ. 결론

이상에서 2014년 6.4 부산지방선거에서 전국적 관심의 대상이었던 부산의 시장선거를 중심으로 3가지 쟁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3가지 쟁점은 선거기간은 물론 선거후에도 많은 관심을 끌었던 투표율, 세대별 투표경향 그리고 무효표의 향방이었다. 연구가설로는 투표율이 높을수록 새누리당에 유리할 것이라 예상하였고, 세대별로 선호정당이 선명하게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점 그리고 무효표가 후보자들의 당락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것이었다.

이 세 개의 쟁점을 검증하기 위하여 먼저 6.4 부산지방선거의 기초통계자료를 정리하고 분석하였다. 16개 구군 중 서병수 후보가 11개, 오거돈 후보가 5개 구군에서 더 높은 득표를 하였는데, 특히 중구와 서구 그리고 동구에서 서병수 후보의 득표율이 높았다. 정당별·선거별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새누리당의 경우 각 선거 간 투표의 일관성이 강하게 나타났지만 구청장선거는 다른 선거와 별로 관계가 없었다.

새정연의 경우 각 선거 간 상관관계가 매우 높게 나타나 투표의 일관성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투표성향으로 미루어볼 때 새정연이 양보한 시장후보에서 새정연 지지자들은 상당한 고심을 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진보정당의 경우 후보를 많이 내지 않아 하나의 특징으로 유형화하기는 어려웠다. 후보 개인의 역량에 따른 득표가 많았을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상의 예비적 분석위에서 3가지 쟁점에 대해 검증한 결과는 아래와 같았다.

첫째, 투표율이 높을수록 새누리당에 유리할 것이라는 예상은 유의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과거의 선거에 비해 6.4선거의 투표율은 많이 높아졌는데, 세대별 투표율을 매개로 한 전체 투표율은 선거결과에 중립적이었다. 이것은 투표율의 상승이, 계층 간에 편차가 있기는 하였지만, 특정 계층에서만 집중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모든 계층에서 일어난 것이란 사실을 말해준다.

둘째, 세대별 투표가 두 후보에 지지에 크게 작용하였으리라는 추론은 사실임이 확인되었다. 60대 이상은 새누리당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고 20-30대는 오거돈 후보에게 우호적이었다. 경계에 선 40대도 반새누리 투표성향을 보였다.

셋째, 높은 무효표의 비율은 오거돈 후보에 불리하게 작용하였으리라는 예상에 대해 통계적 검증은 유의성을 보여주지 않았다. 무효표 비율과 두 후보의 득표율 간의 관계는 중립적인 것으로 나타나 어느 후보에게도 유리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물론 무효표는 여러 루트를 통하여 각 후보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러나 무효표가 만들어내는 여러 작용들의 종합적인 영향은 중립적이었다.

참고로 44개 선거구를 가지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 무효표의 대량발생은 부산과는 달리 새정연의 김진표 후보에게 명백히 마이너스의 영향을 미쳤다(김대래·강경태, 2014: 125-145). 통진당 후보의 사퇴가 부산보다 더 늦었던 점, 김진표 후보가 새정연 후보로 나왔다는 점이 부산과 달랐다. 세대별 투표는 부산과 마찬가지로 나타나 세대가 높을수록 새누리당 지지가 확실히 드러났다. 반면 투표율은 경기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다만 미약하지만 투표율이 높을수록 새누리당의 남경필 후보의 득표율이 높아지는 추세가 확인되는 것이 부산과 달랐다.

참고문헌

『국제신문』. (2014). 5만 4000장의 무효표, 그 민심을 읽어라, 6.5:1.

『국제신문』. (2014). 60대 이상 與 vs 30대 이하 野…세대간 엇갈린 표심. 6.5.

『국제신문』. (2014). '낀세대' 40대, 지방선거서 野에 몰표. 6.5:2.

『국제신문』. (2014). 무효표 5만4000여 표, 초접전 서병수-오거돈 승패 '좌우'. 6.5.

『국제신문』. (2014). 민심의 '절묘한 선택'…정치권 모두에 던진 '회초리'. 6.5.

『부산일보』, (2014). 부산시장 후보 여론조사, 5.26:3.

『부산일보』. (2014). 선택 6·4 지방선거] 서병수 뒤집기, 보수층 결집·5만 4천 장 무효표가 결정지었다. 6.5:2.

『부산일보』. (2014). 선택 6·4 지방선거] '세월호 눈물'보다 '박근혜 눈물' 더 큰 위력. 6.5:5.

『연합뉴스』. (2014). 압도적 승자 없었다..여야에 냉엄한 민심 회초리(종합). 6.5.
『연합뉴스』. (2014). 앵그리맘·숨은표..선거에 어떤 영향 미쳤나. 6.5.
『부산일보』. (2014). 정당 지지자 12만 명 서병수 외면 추정… 새누리 '승자의 고민'부산시장 선거로 드러난 '다중 민심'. 6.9:3.
『한겨레』. (2014). 이번에도 갈린 '세대별 표심'..20·30대 새정치, 50·60대 새누리 몰표. 6.5.
『한겨레』. (2014). 초박빙 부산시장 선거에 1·2위 표차의 2.6배 많은 무효표 큰 영향. 6.5.
『연합뉴스』. (2014). '초접전' 부산시장 선거 무엇이 승패 갈랐나. 6.5.
『오마이뉴스』. (2014). 침몰하는 박근혜, 국민들은 왜 구해줬나. 6.5.
JTBC 뉴스. (2014). 6.5.
강경태·박범종·고선규·강성훈, 18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재외국민의 정치인식과 투표행태: 베이징과 칭다오 지역을 중심으로, 21세기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제23집 2호, 2013.9, pp. 211-228.
강경태, 5.31 지방선거 투표참여도 분석, 한국시민윤리학회, 「한국시민윤리학회보」 제21집 1호, 2008.6, pp. 223-244.
강경태, 역대 한국선거(1987-2006) 투표율 분석, 경희대학교아태지역연구원, 「亞太硏究」 제15권 제2호, 2008.11, pp. 119-140.
김대래·강경태, 2014년 6.4 지방선거: 부산 경기 선거행태 비교분석, 한국선거학회, 2014 아시아 선거연구 국제학술대회, 2014.10.17, pp. 125-145.
박범종,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부산시민의 선택과 미래-부산광역시장 선거를 중심으로-, 신라대학교 부산학센터, 「부산연구」, 2014.12, pp. 97-120.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시민포럼-민선 6기 부산시장에게 바란다-」, 2014.5.13, pp. 1-57.
송건섭·이곤수, 유권자의 투표행태와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2002년, 2006년, 2010년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회보」, 제15권 3호, 2011, pp. 49-71.
정용하, 한국정당의 발전방안: 1981년 이후 총선 및 대선과 관련하여, 「21세기정치학회보」, 9.2, 1999.12, pp. 347-36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4.6.4 실시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투표율 분석 결과」, 2014, pp. 1-34.
최원석, 한국선거제도의 변화와 부산의 선택, 김대래 외, 「부산의 이해』, 효민, 200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통계청, 홈페이지.

김대래(金大來): 1988년 부산대학교에서 경제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신라대학교 국제통상학부 교수로 있다. 부산경제사 및 부산학에 관해 연구를 해오고 있다. 『부산귀속사업체연구』(2006), 『해방직후 부산경남지역의 공업』(2006), 『부산의 기업과 경제』(2013) 등의 저서와 '개항기 일본인의 여행기에 나타난 조선인식'(공저/『역사와 경계』/2014.12.31), '한국전쟁 전후 부산 제조업의 입지 및 업종변화'(『항도부산』/2014.5.31), '개항기 서양인의 눈에 비친 부산'(『부산연구』/2013.12.26) 등의 논문이 있다(drkim@silla.ac.kr.)

〈논문접수일: 2015. 04. 15 / 심사개시일: 2015. 04. 30 / 심사완료일: 2015. 05. 22〉

Abstract

Voting behavior appeared in 4 June Busan local election: Focus on effects of voting rate, different voting behavior between generations and void votes

Kim Dae-Rae

This research is to analyze how three factors affect 4 June Busan local election. Three factors are as follows: voting rate, different voting behavior between generations and void votes. Research hypotheses were that Saenuri party would win if voting rate were high; that evidently divided preferences among generations would vividly affect the result of the election; and that enormous amount of void votes would have had disadvantageous effects on O Keo-Don candidate.

Verification results for those three factors are as follows; first, the hypothesis that the high voting rate would be favorable to Saenuri party showed no indication of significance. Although 6 June local election showed higher voting rate compared to past elections, the voting rates across all generations have went high altogether, s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sult of the election and higher voting rate was neutral. Therefore, this testing illustrates that increase in voting rate is resulted not from one specific generation but from all generations.

Second, the hypothesis that generation gap would largely make differences in support rates of two candidates is confirmed as strongly significant. Over 60 years old gave Saenuri party full support. On the contrary, young people from twenties to thirties were favorable to O Keo-Don candidate. Fourties who are in the verge of these two generations were inclined to anti-Saenuri.

Third, the statistical verification on hypothesis that high rate of void votes would have negative impact on the opposition party does not show any significance. Rathe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ate of void votes and polling rates of two candidates is neutral, indicating that the high rate of void votes neither negatively nor positively influenced both candidates. To a certain extent, I presume that void votes may have positive or negative impacts on candidates. However, the overall influence brought by diverse impacts of void votes is concluded as neutral.

Key Words: 6.4 local election, Busan, void votes